2025 국립무형유산원 예능풍류방 기획공연



새로운 여정

2025년 예능풍류방 레지던시에 참여한 무형유산 전승자들이 서로 연구하고 협업하여 만들어낸 특별한 무대. 전통의 깊이를 새롭게 조명하여 무형유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여정을 담는다.

김영은 경기도 도당굿 이수자
권효진 승무 이수자
최만 판소리고법 이수자
정유경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

가야人鼓고

최만 판소리고법 이수자
정유경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7.2 wed 19:30
얼쑤마루 소공연장

기억된 신명×생명의 DNA

김영은 경기도 도당굿 이수자
권효진 승무 이수자

7.5 sat 16:00
얼쑤마루 소공연장

모시는 글

국립무형유산 원장
박판용

햇살이 짙어지고 초록이 무성해지는 계절,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이때 예술도 한층 더뜨겁고 진하게 피어납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묵묵히 쌓아온 열정과 땀방울의 진심을 담아 **2025년 무형유산 예능풍류방 협업작품 '새로운 여정' 기획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예능풍류방 레지던시 사업은 우리 원이 추진하고 있는 전문교육의 최상위 교육과정입니다. 각기 다른 종목의 전승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체계적 접근, 각자의 전승 종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및 공유 등 창조적 협업을 통해 새로운 무형유산 공연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전승자들의 작품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전통문화 예술진흥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예능풍류방 사업에 참여하여 열정과 노력을 다해주신 김영은 경기도 도당굿, 정유경 가야금산조 및 병창, 최만 판소리고법, 권효진 승무 이수자님께 감사드리며 무형유산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도움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예능풍류방 '새로운 여정'을 관람하는 모든 분들이 무형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인고의 시간을 거쳐 탄생한 공연이 잔잔한 여운으로 마음에 스며들어, 일상 속 작은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형유산 예능풍류방 연도별 선정자

2024

灌浴 관욕푸리
박영미 – 살풀이춤 이수자
안지훈 – 영산재 범패 이수자

太平태평나례
김미자 – 승무 이수자
양근수 – 남사당놀이 이수자

2023

숨歌춤 : 대승무
공민선 – 승무·살풀이춤 이수자
이노연 – 승무·살풀이춤 이수자

삭대엽풀이
김미경 – 가곡 이수자

춤 떨림으로 소리를 담다
공민선·이노연

2022

업의 鏡
강은영 – 진도씻김굿 이수자
김수영 – 살풀이춤 이수자

해결사 처용
강영미 – 처용무 이수자
신명균 – 고성농요 이수자

Hello, 봉구
강향란 – 남사당놀이 이수자

2021

월가금무 月歌琴舞
차명희 – 승전무 이수자
오경희 –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금琴손 엄니
정길선 –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성지혜 – 진주검무 이수자

당신의노정
변진섭 – 경기도 도당굿 전승교육사

2020

숨 : 쉼_21세기 벽사진경 僻事進慶
김연정 – 승무 이수자
김태호 – 가산오광대 이수자

개안타_開眼打
신희라 – 강릉단오제 이수자
조현일 –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무형유산의 사계 四季
김연정·김태호·신희라·조현일

본 공연은 2025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주최한 '무형유산 예능풍류방'에 참여한
예능종목 전승자들이 일정 기간 연구·연행활동을 통하여
기획·연출한 작품이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던 전승자들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만나 상호교류 및 협업을 통하여 무형유산의 기반을 두고
시대성을 가미한 공연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2025 예능풍류방 선정자



최만
판소리고법 이수자

정유경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가야人鼓고

최만 판소리고법 이수자
정유경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7.2 wed 19:30

기억된 신명×생명의 DNA

김영은 경기도 도당굿 이수자
권효진 승무 이수자

7.5 sat 16:00

얼쑤마루 소공연장



김영은
경기도 도당굿 이수자

권효진
승무 이수자











가야人鼓고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소공연장

7.2 wed 19:30

최만 판소리고법 이수자
정유경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가야人鼓고》는 예술가이자 무형유산 이수자인 정유경과 최만의 협업 작품을 상징하는 것으로 가야금의 옛 이름인 '가얏고'에서 시옷 받침을 사람 인人자로, '고' 글자를 북 고鼓자로 변형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출발해 가야금과 북이 만나고 악기를 연주하는 두 사람이 만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작품이 그려진다는 의미로 가야금과 소리, 글언문과 가락,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내포한다.

이는 가야금과 북, 선율과 반주라는 기존의 관계를 넘어 인연因緣, 人-連의 탐구와 공존의 화두로 바라보는 독창적인 만남의 시선이다. 가야금의 섬세하고 서정적인 선율이 북의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장단과 만나 또 다른 작품에서 조화를 이루고, 다른 공간의 소리와 존재를 고찰하며 공감하고자 한다. 그 안에서 글은 가락을, 가락은 소리를, 소리는 악기와 춤을 만나 전통음악의 재해석과 창작으로 작품을 도출해냈다.

또한, 전통음악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새로운 장단인 '흥모리'와 '엇진양'의 창작을 통해 전통 장단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전통은 고정된 형태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예술임을 증명한다. 언문으로만 남은 구전민요에 숨을 불어 넣고, 잊혀 가는 타악기를 소환하며, 새로운 리듬과 독창적인 주법으로 보존과 계승을 관철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현대적인 요소재즈 피아노, 창작무용 등와의 융합은 전통음악이 박물관 속의 유물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로 재탄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공연의 컨셉은 '人', '連', '和'의 세 가지 주제로 이어진다.

1막 '人만남'에서는 '가야금'과 '북'을 연주하는 두 사람의 만남으로 다른 소리를 가진 두 악기의 만남, 가야금산조와 구음의 만남, 구음과 병창의 만남 등을 의미한다.

2막 '連인연'은 또 다른 만남과 조우의 확장 단계이다.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만난 인연因緣, 人-連은 작곡·초연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죽장구·양철장구·대나무장구 등 쉬이 보기 어려운 전통 타악기들이 무대에 소환되고, 언문글으로 남은 전주지역의 구전민요가 가락을 입고 소리를 얻어 과거의 시간이 현재의 무대 위에서 재현된다.

3막 '和동행'는 1, 2막의 '人'과 '連'을, 현대판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로 확장한다. 전통과 현대의 공존을 두 인연因緣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만남으로 재해석한 이야기는 '人만남' – '連인연' – '和동행'를 이어 형상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글. 정유경

1막 人 가야금산조 구음과 병창의 만남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구음 병창초연
가야금산조, 구음과 만나다

오선보가 상용화되면서 가야금산조마저 계이름으로 전승되는 현시대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오른손으로 줄을 뜯고 왼손으로 만들어내는 줄의 소리, 즉 '여음餘音'을 가야금 열두 줄의 고유 이름인 율명을 붙여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야금산조 중 김죽파류 가야금산조를 구음口音 병창으로 선보이는 의미 있는 무대이다.

출연 : 정유경(가야금산조·구음 병창), 최만(북)

2막 連 언문민요와 가야금병창의 조우

가야금병창 언문민요초연 **– 전주의 소리를 찾아서**
가락을 잃어버린 구전민요, 선율의 옷을 입다

북의 울림이 잊혀져간 과거를 되살린다. 잊혀진 악기인 양철장구, 대나무장구, 죽장구 등이 새로운 가락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본 공연에서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이야기 언문으로 남아있는 『언문조선구전민요집』 김소운편, 최박광 해제, 박문사, 1980에 수록된 우리나라 각 지방의 구전민요 중 전주지역에서 전해온 것으로 보이는 가사를 선별 가락을 붙여 가야금병창 형식으로 표현했다. 전주지역에 남겨진 할머니의 할머니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어린 시절. 노래로 꽃피는 현장에서 가야금 연주자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자.
1. 천자읽기 / 2. 녹두새 / 3. 둥개야 / 4. 우지마라 / 5. 수양버들

출연 : 정유경(작곡·안무 / 가야금·소리·춤),
최만(죽장구·양철장구·오션드럼), 김영은(다듬잇돌·대나무장구·꽹과리),
앤디킴(피아노), 장희영(25현가야금)

3막 和 전통과 현대의 동행

비의 노래초연
전통가락의 현대화를 행한 새로운 장단, '흥모리' 와 '엇진양'

가야금과 북의 만남은 어느덧 '춘향'과 '몽룡'의 만남으로 확장된다. 새롭게 만들어진 '흥모리', '엇진양' 장단과 피아노, 창작무용, 소리가 결합되면서 전통적 '인연'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확장하여 형상화한다. 가야금과 북이 주도적으로 장면을 이끌고 25현 가야금의 감미로운 선율이 과거의 만남을 느낄 수 있게 하며 각각의 세부적 장은 만남, 이별, 재회를 다뤄 '인연'이라는 주제의 '人만남' – '連인연' – '和통행'이라는 극적인 요소들로 구현된다.

전통과 현대의 동행, 비의 노래는 전통 판소리 '춘향가'의 주요 장면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악극이자 융합 공연이다. 음악과 춤, 연극적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였으며, 춘향의 사랑 이야기를 '비雨'가 내리는 과정에 빗대어 현대적인 종합 예술로 승화시킨다.

1장은 만남과 사랑, 이별의 과정으로 이를 첫사랑의 이슬비와 강렬한 소나기, 고통의 폭우로 담아냈다. 감미로운 피아노의 서정적인 멜로디와 무용수의 아름다운 몸짓으로 구현한다. 2장의 기다림은 전통 판소리 쑥대머리로 여우비를 상징한다. 3장 재회에서는 연극인 몽룡과 소리꾼 월매이 어사상봉을 통해 맑게 갠 하늘 아래 밝고 환한 재회를 그린다. 이번 무대에서는 인간의 감정이 비가 내리는 과정과 같은 자연의 순환에 맞닿아 있음을 표현하고, 어둠 뒤에는 빛이, 폭풍 뒤에는 맑은 하늘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출연 : 최만(작품구성·소리북), 정유경(가야금) ,김영은(타악),
앤디킴(피아노), 장희영(25현가야금), 이용선(소리), 최영인(소리), 박현희(무용),
이호준(무용), 강동균(연기)

글·해설 : 정유경

최만
판소리고법 이수자



최만
기획 / 연출 / 소리북·타악 / 글

-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고법 이수자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이수자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수료
- 사) 일통판소리고법보존회 이사
- 전남도립대학교 외래교수
- 전국 고수대회 명고부 대상
- 제16회 사선 전국농악경연대회 지도자상

정유경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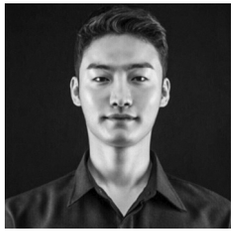
정유경
기획 / 연출 / 가야금·춤·소리 / 작곡·안무·글

-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 이수자
- 전라남도무형유산 가야금산조 (김병호류) 이수자
- 서울대학교 졸업 및 음악학 박사
- 정유경 바른소리국악원 대표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대상특정형 공연전문가
- 사) 예가회 이사
- 사) 가야금산조진흥회 이사
- 사) 한국가야금연주가협회, 송죽회 회원
- 전) 이화여대, 추계예대, 국립경상대, 경희대, 숙명여대, 성공회대 외래교수 역임
- 전) 서울 동덕여고, 서울전통예고 실기 및 교과 음악 강사 역임
- 제6회 동아국악콩쿠르 특상
- 제9회 한밭가야금경연대회 대상
- 제5회 의정부 죽파 가야금경연대회 대상
- 정유경가야금독주회 10회 개최

무용



박현희(안무, 춘향)
-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상임단원
- 한국춤협회, 우리춤협회,
  대한무용협회 전주시 지부 이사
- 박현희 무브먼트 대표



이호준(몽룡)
-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상임단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수건춤 이수자
- 제10회 세종대왕전통예술 경연대회 문화부장관상

작창 및 소리



최영인(이별가, 어사상봉)
-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창악단 단원 역임
-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부 장원
- 제19회 남도문화재 특장부분 대상
- 2023 대구 팔공사야 국악상 수상



이용선(사랑가, 쑥대머리)
- 코리아 월드뮤직 〈오감도〉 단원
- 루마니아 한국대사관 및 스페인 한국문화원 초청공연
- 부안 정명 60주년기념 〈매창뜸에 이화우 흩날릴제〉 매창역
- 마당창극 〈천하맹인이 눈을 뜬다〉 매창역

연주자



앤디킴(음악감독, 재즈피아니스트)
- 전남도립대학교 공연음악과 초빙교수
- 장사익 전속 피아니스트, 주현미 콘서트 투어 세션
- 시카고 컬럼비아 대학교 재즈 학사
- 상명대학교 뉴미디어음악학과 박사
- 국악인 김덕수, 안숙선, 고영열, 민은경, 오정해, 김준수, 뮤르,
  이봉근, 조엘라, 하윤주 등 협연



장희영(25현가야금)
- 하이브리드 앙상블 '닮음'대표
- 서공철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이사
-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졸업
- 이태리 Gaspare Spontini – 모던작곡 박사
- 제73회 개천예술제 경남도지사상 최우수상

연기자



강동균(몽룡)
- 극단 데미샘 연극 '그날 하얼빈',조도선 役
- 극단 작은소동 뮤지컬 '무왕의 꿈' 대성팔족 役
- 연극 "장르는 SELF입니다" 연출, 극작, 멀티 役
- 전주문화재단 낭독극 "댄스플로어" 멀티 役
- 전주문화재단 뮤지컬 "엄마의 카세트테이프" 멀티 役

연출자문



손혜선
- 2025 국가유산진흥원 〈창경궁 물빛연화〉 총괄PM
- 2025 공연예술창작산실 무용극 〈녕(寧),왕자의길〉 협력연출 /
  무대감독
- 2024 대전동구동락축제 주제공연 〈소제몽〉 연출

도움주신 분들
조연출 — 강수빈
작가 — 김소권
메이크업 — 서정아, 송나연
영상 — 최종찬
경기도 도당굿 이수자 — 김영은



기억된 신명×생명의 DNA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소공연장

7.5 sat 16:00

김영은 경기도 도당굿 이수자
권효진 승무 이수자

생명의 DNA 흔들고 떨고 털어라. 오롯함만 남는다. 영가무도+승무+태평춤이 담긴 유전자 기본골격에 자연발생적으로 생성하는 생명활동이 잠재해 그 속에서 끊임없이 깨어나고, 떨림, 울림의 소리진동과 고주파로 정기신을 깊이 흔들어 생명력이 살아나는 그 진동을 춤으로, 그 울림이 발현되는 춤은 생명을 흔들어 깨운다. 의식, 정신, 몸, 맘, 숨, 이것이 삶에서 깨어있음 자체이다.

대우주 운행과정을 살피며 소우주인 몸속 '기'는 원자-전자기,류의 운동성 다음 물질의 결실물, 자연탄생, 생명창조이다. 기氣를 가진 생명운동의 본질을 고전의 방식을 통해 구성, 결실물로 창조되는 진화 과정을 작품으로 만난다. 하늘의 별 '영가무도'의 울림과 떨림의 맥박, 승무를 통해 생명을 창조하는 '생명의 그물', 모듦을 해결하는 태평춤은 태평세상과 만나는 한밝의 세상 생명물결춤으로 일으켜 분다. 대·소우주가 관통된 운동성을 통해 고전의 구조와 춤 안에 몸속 전류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 하나로, 기운을 생성해 쌓아감을 음악의 구성, 미디어 아트로 구현하였다. 기를 가진 원자-전자들의 생명운동성, 쉼없는 생명운동은 만물이 자연스럽게 열려 다음 단계로 진화하는 방식, 작게는 각 작품의 장별 쌓아가는 수련 단계의 결실물을 '생명의 DNA'로 재해석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굿'은 오래된 공동체의 염원을 담아낸다. 굿은 단지 제의가 아닌, 집단성과 종합예술성, 제의성, 신비성, 신명성을 모두 아우르는 복합적 표현 양식이다.

이번 작품은 이와 같은 굿의 본질 위에 서서, 현재의 무대 위에 펼쳐지는 살아 있는 굿판을 구현하려 한다.

굿에서 '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서사를 전달하고 서정적인 가사로 신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다. 그 소리를 통해 우리는 해원하고, 해갈한다. '장단'은 굿의 맥박이자 기둥이며, 반복과 고조 속에서 관객을 몰입의 순간으로 이끈다. 굿은 음악과 무의 조합일 뿐 아니라,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 움직이는 예술이다.

이번 공연은 경기도 도당굿의 산이화랭이의 시선을 통해 굿판의 '파닥거리는 생생함과 낯설지만 강한 생명력'을 무대 위로 옮긴다. 특히 산이의 역할 가운데 '악사'로서의 존재에 주목하여, 경기도 도당굿의 장단을 재해석하고 무가巫歌를 새롭게 구송한다. 그리고 그 무가를 개사하여, 관객과 함께 부르고, 호흡하고, 소통한다.

도당굿의 산이는 굿을 끌고 가는 리더이자, 예술적 주체다. 그가 이끄는 굿판은 경계를 허물고, 일상의 무대 위에 신성과 공동체적 에너지를 불러온다. 이번 무대는 바로 그 산이의 정신을 담아, 굿을 매개로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연결되는 새로운 굿판을 펼쳐보려는 시도이다.

'지금 여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두의 신명과 기억의 회로, '기억된 신명×생명의 DNA'로 모두 함께 일어나 생명물결을 노래하자!

1장 하늘의 별 '영가무도詠歌舞蹈' × 부정청배'

생명 — 하늘의 별 '영가무도詠歌舞蹈' 울림과 떨림의 맥박脈搏

하늘의 별 '영가무도詠歌舞蹈'는 원자들의 운동성을 생명춤으로 해석하여 물질의 진동, 파장으로 결실의 성숙 단계를 거쳐 조화를 이루고 진화한다. 그 원자의 생명운동인 울림과 떨림은 기氣를 통해 몸속에 잠재해 있는 모듦을 일깨워 춤추게 한다.
오행 – 오장과 연결된 오음은 '토 : 비장 : 음', '금 : 폐 : 아', '목 : 간 : 어', '화 : 심 : 이', '수 : 신 : 우'로 상징한다. 음, 아, 어, 이, 우의 오음초성 'ㅇ'는 하청 – 중청 – 상청의 돌림이 반복하여 구르는 속에 곡절曲節, 자율변화로 기운을 생성하고 자연스럽게 열린 오음소리 진동이 확장된 떨림으로 생명의 자율춤을 춘다.

몸속의 구슬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할수록 기운이 응축하여 길게 늘려 읊고, 선이 연결되어 곡절로 변화를 가지며 탄성 – 반동 – 마찰 – 진동이 하나된 운동성은 온몸의 심장박동이 꿈틀대어 다음 단계로 생성한다. 영가무도의 새 생명의 빛의 모음을 연결한 '덩~기덕~쿵'의 구음은 우주만물의 합을 모아 그 덕德을 쌓아 거듭한 최고의 선, 복福의 한밝의 빛으로 감싸안아 생명의 씨알을 만든다. 소리진동이 내부의 떨림으로 춤추게 함은 원자운동의 기운을 쌓아 생명운동을 통해 빛을 생성하여 '구음'으로 우주의 합을 만난다. 생명기운을 쌓아 열림확장의 구현 방식을 영상미디어 아트로 시도하여 생명의 울림과 떨림 구음, 진동을 통한 악기의 파장으로 확장한다.

출연 : 권효진(소리·춤), 유인상(장구 및 음악감독), 정부교(타악), 박주홍(타악), 고령우(피리), 김용성(아쟁)

신명 — '부정청배'

굿의 의례적인 성격과 신과 소통하려는 인간의 마음을 신청의 터를 밟으며 정화하려 한다. 신을 청배하는 무가를 부르며 굿이 가지고 있는 1차적 성격인 접신의 과정을 무속장단으로 새롭게 구성하였다. 기존의 터벌림장단을 쇠가 아닌 장구로 쌍춤을 추며 그려내고, 신을 부르는 청배, 이어서 몸에 임하는 강렬한 몰입의 순간을 장단에 실어보려 한다.

출연 : 김영은(장구·무가), 변진섭(바라), 김기남(편경·징), 박근형(피리), 권명옥(무용), 정유경(가야금)

본격적으로 굿판을 열고,
존재(신)의 통로를 의례로 여는 정화의 장
오늘의 회로 위에 숨결의 길을 놓는다。

「오늘의 회로 위에 숨결의 길을 놓으려 하니
잡된 기운 비켜서고
맑은 숨만 드나들게 하소서。」

2장 '생명의 그물' × '묵음'
생명 '판구조' 충돌 + 생성 + 새판 + 자연운동 + 생명회로의 빛 + 생명의 그물

생명 — 생명의 그물

승무는 승의 의미를 깨닫고 법열의 세계를 맞이하는 고도의 춤이자 '대무大舞'로 각 과장별 전 판을 추는 반복 속에 고도의 수련을 통한 결실물, 생명운동의 단위, 자연운동성, 그 결정체로 내면의 의식을 깨운다.

생명의 진화는 DNA를 확장한 생명의 그물로 '우주의 합合'의 소리 '덩기덕 쿵' 구음을 거듭한 만물의 '합'은 생명의 의식이 매순간 깨어나 자연 변화 열림으로 과장별 생성운동을 한다. 만물의 모음자연의 운동성 열림 결실물, 새 생명의 탄생은 생명의 진화로 해석하여 승무 수련의 결실물을 통해 그물의 빛으로 통과되는 생명의 그물망이다.

'기氣'의 운동성은 마찰, 반동, 탄성, 비틀기 등 몸의 '주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판' 구조의 원자, 전자들의 물질, 결실물로 진화된다. 수련을 거듭한 몸속에서 흐르는 기운의 모임은 생명의 원자, 입자를 펼치면 빛이 통과한 그물망의 엮임, 생명회로의 구슬, 생명열림의 빛과 의식과 실타래로 엮어내었다. 빛은 그물의 망으로 엮어 진화됨을 춤구조, 몸의 운용, 의상, 영상으로 구현하였다.
음악 구성은 단선율이 가지고 있는 몰입도와 자유로움을 강조하고 수련의 몰입으로 쌓아가는 과정을 구음과 선율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각 과장별로 펼쳐보았다.

출연 : 권효진(춤), 유인상(장구 및 음악감독), 정부교(타악), 박주홍(타악), 고령우(피리), 정동민(대금), 김용성(아쟁)

신명 — 묵음默音

사람의 마음에 있는 신성순수을 나의 내면으로 체화되는 것을 대고의 울림으로 도당굿 장단을 해체해 구성했다. 끊어졌다 이어지는 심연의 물방울 같은 소리를 올림채 가락을 중심으로 굿의 비손의 형태를 재해석해 무대화하였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점과 선들을 묵직한 대북 가락으로 실어본다.

출연 : 김영은(대고), 김기남(징)

3장 '태평세상' 태평太平춤 × 세상가世上歌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여 일어나 숨쉬어라! 이곳! 저곳 모두 함께 일어나 태평의 춤소리로 만나자!

생명 — 태평太平춤

태평太平은 자연만물 그리고 만인의 평등과 평화를 바라며 평평하게 나아간다는 실천적인 의미로, 태평춤은 한성준 – 한영숙 – 이애주의 춤맥으로 대·소우주의 생명살림을 각 과장별 특성을 살려 무구를 들고 생명의 몸짓을 다한다. 경기도 도당굿 음악 구조, 과장별 춤의 구성은 기운을 차츰차츰 쌓아올리고 춤의 자율성은 다음 장을 맞이하는 '즉흥의 열림'을 생성한다. 에필로그 도살풀이는 전체 판의 즉흥성을 살려 태평과 한밝세상을 밝히는 감성으로 풀어낸다. 자연과 하나된 생명물결의 춤! 생명을 닦고, 보듬어 평안하게 가는 지금 이곳, 현대인들의 생명, 환경오염, 대·소우주 하나된 자연의 숨으로 돌려 숨쉰다. 생명의 '자율성'과 '즉흥성'이 결합된 생명의 DNA로 속시원히 털고 흔들어 한밝세상과 만난다.

출연 : 권효진(춤), 유인상(장구 및 음악감독), 정부교(타악), 박주홍(타악), 고령우(피리), 정동민(대금), 김용성(아쟁)

천년이 아니라 오늘 하루,
서로 숨 쉬는 이 순간이 귀하도다
우리 서로에게 건네는 노래
이 길 다시 걷고,
이 숨 다시 웃고,
다시 사는 복 받으소서。

신명 — 세상가世上歌

전통의 회로를 연결하고 기억을 깨워 체화해 결국 세상과 사람을 다시 만나는 예술적 공감 확장이다. 너가 있음에 모든 것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굿 또한 사람들의 염원을 굿이라는 매개를 통해 서로 융합하고, 통합된 정서를 갖는 것이 마을굿의 핵심일 것이다. 이를 현재의 굿판으로 지금의 산이 역할로 수행한다. 기존의 제석굿 중 무녀가 부르는 만수받이를 돌멩이와 송사리의 만남으로 개사해 은유적으로 세상을 노래한다.

출연 : 김영은(바라·무가), 박근형(피리), 변진섭(장구), 김기남(징), 권명옥(무용), 최만(모듬북), 정유경(가야금)

어울마당

굿이 끝나고 삶이 다시 시작된다. 이 회로의 다음 숨은 당신의 것, 잔치는 끝나고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돌아와 무대를 정리한다. 예술과 경계가 흐려지며 굿이 끝났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나, 우리는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일상을 살아갈 준비를 한다.

출연 : 김영은(바라), 권효진(춤), 유인상(장구), 정부교(타악), 박주홍(타악), 고령우(피리), 정동민(대금), 김용성(아쟁), 박근형(피리), 변진섭(장구), 김기남(징), 최만(모듬북), 정유경(가야금)





김영은
경기도 도당굿 이수자

김영은
기획 / 연출 / 장구·무가 / 개사 / 글

- 국가무형유산 경기도 도당굿 이수자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전문사 연희전공
-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타악전공
- 굿치는 사람들 해당화 대표
- 전) 인천시립무용단 사물놀이 단원
- 전) 포천시립 민속예술단 풍물부 부장
- 전) 여성 풍물패 산딸아 물딸아 대표
- 전)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겸임
- 전) 국립 전통예술 중, 고등학교 강사



권효진
승무 이수자

권효진
기획 / 연출 / 춤·소리·구음 / 글

- 국가무형유산 승무 이수자 (한영숙류 – 이애주 춤맥)
- 고전문화예술연구회 대표
- 이애주한국전통춤회 지도위원
- 성균관대학교 무용학 박사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무용과 예술학사·예술전문사 졸업
- 국립국악중·고등학교 졸업
- 전)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상명대 미래교육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강사
- 제3회 온나라 전통춤 경연대회 민속부문 금상

[개인발표]
이 곳, 생명물결의 춤!, 한밝춤!
생명물결로!, 국립무형유산원 履修者면
‘생명의 몸짓 그 치유의 巫舞武無’,
수레바퀴 율려律呂의 몸짓, ‘진동과 파장’,
‘춤뿌리를 푸리하면 생명몸짓이 된다’,
춤의 틀과 본本을 찾아서 ‘권효진의 춤’,
향림香林, ‘나무 그리고 인간은 성장한다.’



연주자



박근형(피리, 태평소)
- 국가무형유산 강령탈춤 이수자
- 황해도 무형유산 최영장군 당굿 이수자
- 녹야 국악관현악단 악장겸 지휘자 역임



변진섭(장구, 바라)
- 국가무형유산 경기도 도당굿 전승교육사
- 국가무형유산 승무 이수자
- 예능풍류방 '당신의 노정'



김기남(편경, 징)
- 국가무형유산 경기도 도당굿 전수자
- K-1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 16 개막식
- 굿치는 사람들 해당화의 '2미터의 풍류'

무용



권명옥(무용)
- 국가무형유산 처용무 이수자
- 인하무용단 대표
- 인류 무형유산 지정사업 '처용 역병을 물리치다'

연출자문



홍원기
- 2024 – 2025 〈꿈틀〉 판댄스컴퍼니 창작무용 연출
- 2023 〈무중인_춤속의사랑〉 태평무 보유자 박재희 춤 60년 대본 연출
- 2022 창극 〈별난각시〉 각색 연출

영상



송우람
- 현) 잔나비와 묘한계책 대표
- 전)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특강 강사
- 2024 서울무용제, 김율희 '오래된인연', 김지우 '헤르츠Hz 환상곡' 영상감독

연주자



유인상(장구)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이수자
- 사) 민족음악원 악장
- 전통음악 그룹 '판' 대표



고령우(피리)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석사 수료
- 서울피리앙상블 정회원
- 전통음악그룹 '판' 동인



김용성(아쟁)
-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아쟁산조 전수자
- 제32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금상



정동민(대금)
- 한양대학교 국악과 출강
- 제45회 전주대사습 기악부 장원
- 제49회 춘향국악대전 종합대상



정부교(타악)
-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삼현육각 전수자
- 전통음악그룹 풍류앙상블 '한' 동인
- 서울예술고등학교 강사



박주홍(타악)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전수자
-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삼현육각 전수자
- '젊꾼' 동인

도움주신 분들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 정유경

판소리고법 이수자 — 최만

분야별 전문 자문 및 연구협력 추진 과정

순	일시	전문가	자문내용	자문결과
1	2025. 3. 11.(화)	양근수 (국가무형유산 남사당놀이 이수자)	예능풍류방 참여사례 및 협업을 위한 준비 과정	협업의 효과적인 접근 방법과 단계별 프로세스 전략
2	2025. 3. 18.(화)	윤중강 (평론가)	예능풍류방 작품 방향성과 무형유산 활용에 대한 방안 모색	공연 작품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과 자문을 토대로 작품 수정
3	2025. 3. 25.(화)	김경훈 (한국공연관광협회 대표)	무형유산 공연관광 콘텐츠의 현재와 미래	관객 확장을 위한 마케팅 설정 (브랜드 이미지, USP, 포지셔닝)
4	2025. 4. 15.(화)	진옥섭 (담양문화재단 대표이사)	공연 기획과 방향	공연 기획의 컨셉 잡기 효과적인 공연 연출법
5	2025. 4. 21.(월)	손혜선 (연출가)	연출노트 작성 및 무대 스텝에 대한 이해	현대적 무대 구성법, 예술의 탈 경계성에 대한 고찰, 문제의식을 갖는 연출가적 자질 연구
6	2025. 4. 22.(화)	지성자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보유자)	무형유산 활용과 창작공연에 대한 방향성	작품의 정확한 밀도를 구성하는 방법과 이면에 맞는 소리구성
7	2025. 4. 23.(수)	천재현 (연출가)	작품 제작에 따른 배경음악 활용과 무대 디자인	콜라보의 시대정신과 예술가의 성정에 대한 의미 그리고 동조현상의 중요성
8	2025. 5. 28.(수)	최기우 (극작가)	구전민요를 활용한 작업 요소, 작품에 사용되는 언어의 활용, 연기적 요소에 대한 발성	공연 기획서 및 대본 점검 공연 내용 전개의 인과 관계 점검 시간에 따른 필수·부가 내용 설정













참여후기

최만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이신
외조모님故성운선의 권유로 시작한 고수의
길이 어느덧 내년이면 40년이 됩니다.
3대째 국악 가족이라는 무게감은 제게 올곧게
한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고,
이 전통의 무게를 창조적으로 잇는 일에 대한
고민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이수자로 지정된 이후,
국립무형유산원이라는 공간은 저에게 단순한
연습장이 아닌, 설렘과 책임이 공존하는
성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능풍류방 사업은 전통의 토양 위에서
새로운 싹을 틔워보는 매우 도전적인
기획이었습니다. 특히 4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종목이 다른 전승자와 창작
파트너로 만나 협업하고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탄생시킨다는 점은 제게 큰 자극이 되었고,
동시에 전승자로서 저의 역할을 되묻게
했습니다. 고수의 역할이란 단순히 반주를
넘어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짓고 풀어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일이었습니다.

'흥모리'와 '엇진양'이라는 새로운 장단 창작은
그런 고민의 결실이었고, 가야금과의 병창,
구음과 북이 어우러지는 복합적 사운드는
전통 고법이 얼마나 유연하고 생명력 있는
예술인지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더불어 죽장구, 양철장구 등 사라져가는
전통 타악기의 소환을 통해 '북'이라는 악기의
존재감을 다시금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악기가
단지 반주의 수단을 넘어, 무형유산의 기억과
호흡을 품은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실험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출연자 섭외,
악기 조합, 작품 성격 조율까지 모든 것을 함께
고민한 정유경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능풍류방은 제게 있어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고수로서의 역할과 미래를 다시 써 내려가는
소중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무형유산이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억과 감정, 그리고
호흡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이번 협업은
저에게 전통이라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동시에 새로운 열매를 피워낼 수 있는 단단한
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정유경

어린 시절부터 무대에서 춤추고 연주한 나,
만 4세에 설장구로 시작한 전통 예술의 세계는
지금까지 내 삶의 동반자로 존재한다. 만 8세에
시작한 가야금을 춤과 함께 누빈 무대는
늘 내게 황홀함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가
되고 예술가로 50여년이 된 재작년 무렵
국립무형유산원의 여러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예능풍류방 레지전시 과정을 알게
되었다. 개인의 예술성과 영역을 확장하는
동시에 협업으로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점이
무척 매력적이었다.

예능풍류방 레지던시는 처음 만난 상대의
성향과 종목의 이해, 역량에 따른 가능 여부를
판단해 작품을 구상해야 하는데다, 새롭게
시도하는 모든 과정에서 작품을 조율해가는
과정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막막함
가운데 시작한 최만 선생님과의 협업은
결과적으로 가야금 줄의 구음을 활용한
'가야금산조 구음병창' 초연과 언문으로 남아
있는 전주지역의 구전민요 가사에 선율을
입히는 '작곡' 그리고 '구전민요 가야금 병창'
초연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
무엇보다 작곡가를 꿈꾸며 춤추고 노래하기를
좋아했던 내가 작곡자이자 무용가로서 무대
위에 서는 일은 예능풍류방 레지던시가 아니면
결코 꿈도 못꿀 일이다.

특별히 최만 선생님과 만남은 내게
큰 행운이었다. 덕분에 훌륭한 예술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
돌아보면 꿈같은 4개월이 너무나 행복했다.
전주로 내려오는 기차 밖의 풍경은
천상병 시인의 '소풍'을 연상하게 하였고,
국립무형유산원이라는 장소는 무형유산
전승자라는 사실에 오롯이 집중하도록
해주었다. 동이 트는 새벽녘의 시원한 바람과
상쾌한 공기, 지저귀는 새소리는 행복한
아침을 맞게 하고, 형용할 수 없는 풀내음은
숲속 별장으로, 어둑한 밤의 따스한 조명은
무대 위로 나를 이끄는 것만 같았다.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연출가로,
작곡가로,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
독보적인 연주가로 한 단계 성장케 해준
국립무형유산원의 레지던시 사업은
예술가로서 빛날 수 있던 최고의 순간과
장소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김영은

대학 시절, 팔공산의 작은 암자에서 지내던 어느 날, 노스님의 칠순을 맞아 준비한 작은 생신잔치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사님들이 장구를 어깨에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그 길, 장구가 흔들릴 때마다 두둥두둥 울리는 그 소리에 제 마음은 저절로 들뜨고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의 울림은 제 안에 깊이 새겨졌고, 이유 없이 마음을 움직이는 그 떨림이 굿의 음악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굿은 언제나 경계에 서 있는 예술입니다. 일상과 비일상, 삶과 죽음, 인간과 신, 나와 공동체 사이에서 계속해서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능풍류방 레지던시에 참여하면서 저는 전통 예술이 가진 이러한 '경계성'을 다시 사유하게 되었고, 다른 전승자와 함께 협업을 통해 그것을 무대 위에 구현하는 여정은 말 그대로의 '굿판' 이었습니다.

특히, 권효진 선생님과 함께한 협업은 굿과 춤, 소리와 몸짓이 하나의 회로로 이어지는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각자의 전공과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우리는 생명의 근원을 향한 질문 앞에서 같은 결을 공유하고 있었고, 이 공유된 결은 '기억된 신명×생명의 DNA'라는 무대에서 하나의 맥박으로 살아 움직였습니다. 대북과 장구, 징, 바라 등 굿의 타악기는 각기 다른 목소리로 생명의 호흡을 이야기했고, 무용과의 교차 속에서 전통이 오늘의 리듬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레지던시는 단순한 연습이나 기획의 공간을 넘어, 전통 예술의 의미와 오늘의 쓰임을 새롭게 마주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굿' 이라는 전통 양식이 단지 형식의 보존이 아닌, 오늘의 무대에서 관객과 진심으로 호흡할 수 있는 생생한 예술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주에서의 여정은 저를 전통 예술의 뿌리로 더 가까이 이끌었고, 전주천의 물결은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기리는 것은 다 님이다' 라는 문장을 되새기며, 오늘도 저는 님을 위한 노래를 세상을 향해 부릅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숨이 되기를, 굿의 살아있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권효진

5살, 어머니 손에 이끌려 시작한 춤은 제 삶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춤을 추는 것이 그저 즐거웠고, 시대별·지역별 전통춤과 창작춤까지 두루 수련하며 생명박동이 느껴지는 춤, 고전과 연결되는 춤의 참뜻을 실천해 왔습니다. 저에게 춤은 단순한 동작의 표현이 아닌, 몸·마음·정신이 하나로 직관하고 깨어나는 의식의 확장이자, 생명을 잇고 창조하는 수행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레지던시 사업은 전승자 각자가 품은 예술적 지향을 작품화하고, 서로 협업하여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그간의 승무 수련과 체득의 결과물을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하던 시점에서, '생명'이라는 주제를 통해 작품을 기획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기대감을 안고 참여했습니다.

굿과 춤은 하나의 결속력을 지닌 가·무·악 총체적 종합예술로 스승이신 이애주 은사님의 인연으로 김영은 선생님을 예능풍류방에서 만나 더욱 반가웠습니다. 경기도 도당굿의 마을굿은 사람을 보듬는 '순수'한 마음씨인 신명×생명의 회로가 한 축으로 전통 예술의 방향성, 감각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시너지가 생겨났습니다.

전통춤이 지닌 생명적 속성을 무대 위에 구현하는 데에 공감과 협력이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간 승무를 통해 생명에 대한 인식을 깊이 있게 탐구해왔습니다. 각 과장별 구조는 단순한 순서가 아닌 생명의 형성, 순환, 재생을 몸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승무의 수련은 자기 인식과 자각, 의식의 확장을 통해 생명의 움직임을 깨우는 여정입니다. 몸의 마디와 선, 주름은 우주적 진동과 닮아 있으며, 자연의 순환을 따라 기운이 흐르듯 인간의 몸에서도 에너지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원자와 전자의 움직임, 점과 선이 연결되는 구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무늬이며 춤의 구조로 전개됩니다. 승무는 그러한 생명의 근원을 구체화하는 정중동의 예술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하늘의 별 '영가무도', '생명구음', '생명의 그물', '태평춤'을 통해 생명의 진동과 우주의 합일, 그리고 인간 내면의 울림을 무대 위에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춤은 단지 형식이 아니라 자연운동과 감각, 신명의 에너지를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4개월간 전주와 경기도를 오가며 함께 작업한 시간은 짧지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의 쾌적한 환경과 세심한 지원, 여러 관계자분들의 헌신 덕분에 예술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나눈 식사, 대화, 연습은 마치 가족 같은 인연으로 남았고, 예술가로서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물 생명의 근원 고전과 생명살림의 씨를 주신 이애주 은사님, 춤과 장단의 맥을 연결해주신 유인상 선생님, 이애주한국전통춤회 식구들의 응원으로 한 발 더 나아간 생명으로 발돋움합니다.

'기억된 신명×생명의 DNA'라는 주제 아래, 이 작품이 생명의 떨림으로 관객과 연결되고 또 다른 생명력으로 진화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명의 떨림, 그것은 곧 우리의 예술입니다.

새로운 여정

www.nihc.go.kr 063 280 1500, 1501

가야人鼓고

최만 판소리고법 이수자
정유경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7.2 wed 19:30
얼쑤마루 소공연장

기억된 신명×생명의 DNA

김영은 경기도 도당굿 이수자
권효진 승무 이수자

7.5 sat 16:00
얼쑤마루 소공연장

공연문의 및 예약

공연예약 :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 www.nihc.go.kr
공연문의 : 063 280 1500, 1501
전석 무료 공연

국립무형유산원

제작 — 국립무형유산원 공연협력팀
제작총괄 — 박판용 원장
공연총괄 — 탁경백
기획 — 최미진
운영지원 — 문철훈, 하윤아, 박민혜, 이다건
무대감독 — 장오성
음향감독 — 이재정, 박준혁
조명감독 — 박재섭, 문지훈
영상감독 — 안정훈
기계감독 — 라경채
하우스·티켓 — 전소라, 서혜진
행정 — 신태웅, 장재호
시설 — 지문근, 윤성호, 오준상, 김영식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